

# 아름다운 건축물 완주의 한옥

완주아원고택 · 오성한옥마을,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봄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완주군(군수 박성일) 소양면에 소재한 아원고택과 오성한옥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4월에 선정하는 봄에 아름다운 건축물 5선에 선정됐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여행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2021년 4월 테마인 '봄에 아름다운 건축물'에 '종남산의 봄빛과 어우러진 고택, 완주아원고택과 오성한옥마을'을 선정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지난 2019년 BTS(방탄소년단)이 '2019 서머 패키지 인 코리아' 영상과 화보를 찍으면서 유명세를 타고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원(我園)고택은 '우리들의 정원'이라는 뜻의 한옥스테이 공간이다.

종남산의 그윽한 능선을 품고 있는 이곳은 250년 된 고택을 이축한 한옥의 건축철학과 현대식 건물의 조화를 구현해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아원고택의 주위에는 한옥 22채가 모여 오성한옥마을을 이루고 있다.

종남산, 서방산, 위봉산, 원등산이 포근하고 아늑하게 에워싸고 있는 이 한옥마을은 소양고택, 죽림원 등 한옥스테이와 플라커 책방, 오스켈러리 등 테마별 많은 카페들이 즐비하다.

일명 'BTS 소나무'라 칭하는 소나무 한그루가 서 있는 오성재 저수지, 문화생태숲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최근 완주여행의 필수코스 자리잡고 있다.



완주군 소양면에 소재한 아원고택과 오성한옥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4월에 선정하는 봄에 아름다운 건축물 5선에 선정됐다. (사진은 완주아원고택)

올해 완주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숨은 관광지인 '복합문화공간 산속등대', 2021 봄시즌 비대면인심관광지 25선에 '경천에코빌과 화암사', 팹팹족을 위한 전국 반려견 동반여행지로 '경천에인 징검다리길'이 선정된 바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최근 청정자연 속에 문

화적 감성이 풍부한 완주의 숨겨진 관광지들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기쁘다"며 "개인방역과 거리두기 등 안전여행 수칙을 잘 이행해 빠른 시일에 코로나 종식과 편안한 일상과 완주여행으로 여유로움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시민 위한 이벤트 풍성

골목상영 · 가족사진 콘테스트 · 예비 영화인 위한 특별 상영회 등 진행

오는 29일 개막을 앞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전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대폭 확대하고 전주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행사는 올해 첫선을 보이는 '골목상영'이다. 지역 유관 단체와 전주국제영화제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전주 시내 특색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야외 상영 프로그램인 골목상영은 전주를 찾는 관객에게는 색다른 공간에서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주 시민들에게는 독립·예술영화를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골목상영은 전주의 명소인 남부시장 하늘정원과 영화의거리(꺾리단길), 동문예술거리에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영화 상영을 시작하며 선착순 입장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주 곳곳의 골목을 영화관으로 만들어줄 상영작은 총 5편으로 전주국제영화제가 투자, 제작하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중 <국도극장: 감독관>(전지희 감독)과 <겨울 밤에>(장우진 감독), <파도치는 땅>(임태규 감독)을 선보인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수입 작품인 <파리의 밤이 열리면>(에두아르 바에르 감독)과 올해 상영작 가운데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노멀'에서 소개되는 <코로나의 밀라노>(밀라노의 영화감독들)도 상영된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는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영화제를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

는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전주시를 주소지로 둔 전주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하거나 전주영화의거리 또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촬영한 가족사진을 이메일(jonju-event@jonjufest.kr)로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참가자는 1인당 총 3회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0일 18시까지다.

전주 지역 예비 영화인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전주 소재 영화 또는 영화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특별 상영회를 진행하는 것. 이번 특별 상영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전주 지역 예비 영화인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와 전주국제영화제 참가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지역 영화인들의 육성에 앞장서고 응원하겠다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의지를 담아냈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오프라인 상영을, OTT 플랫폼 웨이브(www.wave.com)에서 온라인 상영을 실시하며, 대담과 토크 프로그램 등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계정(www.youtube.com/JEONJUIFF)에서 제공된다. 전주 시민을 위한 골목상영과 가족사진 콘테스트에 관한 내용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onjufest.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은경 기자



고인돌유적 상시체험 동경그리기 모습.



고인돌유적 상시체험 운동과 나침반 알아보기 모습.

# 무주산골영화제, '국내영화제육성 지원' 6년 연속 선정

국내영화제 중 가장 많은 8000만원 지원금 확보

2021년, 아홉 번째 영화 소풍을 준비 중인 '무주산골영화제' (6.3.~6.6. / 6.11.~6.13.)가 6년 연속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주최하는 '국내영화제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대체불가한 특별한 영화제임을 인정받았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1년도 '국내영화제육성 지원사업'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국내영화제 중 가장 높은 금액인 8,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국내영화제육성 지원사업'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및 영화시상식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58개의 국내 영화제 및 영화영상단체가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총 32개 영화제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무주산골영화제가 가장 많은 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영화제를 개최한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인 동시에 2021년 올해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실효성, 사업 주체의 전문성, 예산의 적정성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무주산골영화제는 2018년부터 4년 동안 국내 영화제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아오고 있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와 같은 선정 결과에 대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무주산골영화제만의 독보적인 정체성

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과 무주 지역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객들이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매년 풍성한 국내외의 영화 라인업과 함께 깊이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로 2030 세대는 물론 가족 관객까지 믿고 즐기는 영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무주산골영화제. 올해는 자연 친화적이고 야외 프로그램에 특화된 무주산골영화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관객의 밀집도 최소화, 동선 분산화 등 안전한 개최를 위해 6월 3일부터 6일까지(4일간),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3일간) 총 2주에 걸쳐 7일 동안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성 기자

# 고창 고인돌유적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고인돌야행 · 상시체험 등 4건

고창군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1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에 깃들여 있는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지역공동체 지원, 문화 및 예술과 결합해 공연, 문화활동,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인돌문화와 역사를 천문, 생태, 지역문화예술과 융복합한 프로그램인, 세계유산과 운동이 함께하는 고인돌야행 ▲고인돌유적에서 청동기시대의 관련된 의식주(衣食住)와 고인돌 축조 체험인, 고인돌유적 상시체험 운영 ▲선사시대 유물인 돌화살촉,

반달돌칼 등을 실제 제작해보는 죽림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상시운영 ▲고인돌과 자연의 색이 만나는 힐링과 치유문화 프로그램 고인돌! 자연의 색을 담고 치유의 숲이 되다 4건이 운영된다.

고창 고인돌유적에서는 오는 5월 8일 '고인돌! 자연의 색을 담고 치유의 숲이되다'를 시작으로 5월 22일 '세계유산과 운동이 함께하는 고인돌야행' 등 각 프로그램이 11월까지 진행된다.

고창군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은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을 널리 알리고, 고창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